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March 2015
No. INT2015-08
What's inside:

Tip 1 - Reasonable and supportable

Tip 2 - Cross-check

Tip 3 - Carrying amount

Tip 4 - Terminal value

Tip 5 - Discount rates

Impairment of non-financial assets – Expanding on the top 5 tips for impairment testing

At a glance

글로벌 시장은 최근 몇 개월동안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기업은 비금융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과 예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손상검사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회수가능액으로 대용치가 사용된 경우에도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기초 가정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더구나 손상은 감독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기도 하다.

최근에 발표한 In Brief 2015-02 ‘Top 5 tips for impairment reviews of non-financial assets’에 추가하여 본 In Depth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시 참고할 5가지 tip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IAS 36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FVLCD)와 사용가치(VIU)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FVLCD는 대부분 현금흐름모형을 사용하지만 시장참여자 접근법이고, VIU는 기준서에 따른 특정 규정과 제한이 있는 현금흐름모형이다.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의 장부금액은 FVLCD와 VIU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1 *Cash flows must be reasonable and supportable*

Realistic assumptions

현금흐름 예측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해야 하고,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IAS 36 문단 33].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현금흐름에 반영되어야 한다.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FVLCD)의 계산에 사용되는 현금흐름은 사용가치(VIU)의 계산에 사용되는 현금흐름과 다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사용되는 현금흐름의 차이가 합리적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예측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나 경제전망과 같은 외부 증거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현금흐름의 가정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

Example 1 – Supportable growth rates

기업 L은 가정용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한다. 경영진은 차년도에 4.5% 성장하고 그 다음 2년동안은 6% 성장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최근 몇 년동안의 과거 성장률은 이러한 추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경영진이 고려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향후 몇 년간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할 때 전반적인 GDP 성장률과 먼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시장 자료에 기초하면 20x6년은 대략 1.25%로 예측된다면, 경영진의 가정은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

경영진은 소비자 지출에 대한 시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다. 가구별 부채 수준의 증가, 신용 상태의 약화와 물가의 상승까지 고려하면 재량 지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최근 외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의 개인 소비는 1.8% 증가하였고, 20x6년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영진은 과거 매출 성장 추세가 개인 소비와 일관되게 변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예측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시장 예측에 따라 향후 3개년 동안 매출 성장이 없는 것으로 것으로 예측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인식될 수 있다.

Key assumptions should be disclosed

주요 가정과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공시되어야 한다 [IAS36 문단 134]. 주요 가정치가 외부 정보 또는 과거 경험치와 차이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IAS 36 ‘자산손상’과 IAS 1 ‘재무제표 표시’는 방대한 양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의 감독기관은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공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유럽의 증권감독기구(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는 2014년도의 우선 이행 항목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손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영업권 손상 검토시 손상되지 않았지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적은 경우, 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공시(외부 증거 또는 과거 경험과 연계하여 이러한 가정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포함)가 필요하며 가정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시 누락 항목은 다음과 같다.

- VIU와 FVLCD에 사용한 장기성장률 가정 [IAS 36 문단 134(d), (e)].
- 각 주요 가정과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IAS 36 문단 134].

주요 가정은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변동하는 가정(예를 들면 매출 성장률, 총이익률)을 말한다.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변동되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유의적인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감도 공시가 요구된다 [IAS 36 문단 134(f)]. 변동성이 높은 현행 시장상황에서는 민감도 분석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공시 수준을 보여준다.

Example 2 – Sensitivity disclosure

기업 C의 경영진은 영업권 125백만원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CGU)집단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보다 약간 높다.

회수가능액은 장부금액 보다 10백만원 또는 3% 높다. 다음의 주요 가정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최초 가정	민감도 분석
총이익률	25%	24%
성장률	5%	4.7%

주요 가정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인 변동은 해당 산업의 과거 경험상 변동 범위내이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이다.

추가적인 공시사항은 무엇인가?

손상검사 방법과 예측에 대한 근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많은 공시사항이 요구된다. 아래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거의 동일한 경우의 추가적인 공시항목이다.

- 여유 금액 –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0백만원).
-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치(25%의 총이익률과 5% 매출성장률).
-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변동되어야 하는 주요 가정치 금액 (총이익률의 1% 감소, 성장률 0.3% 감소).
-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총 장부금액(125 백만원)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합계.

경영진은 주요 가정치에 대한 정보가 민감한 사항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Cross-check to market data

현금흐름 예측은 최종 결론이 외부 시장 자료와 부합하는지 상호 검증되어야 한다. 1년 전에는 합리적이었던 가정이 현행 경제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럽지역의 많은 국가에 상당한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고 실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시장의 전망이 있는 경우 유럽지역에서의 현금흐름이 증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장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다. 이는 성장에 대한 가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된다. 비교가능한 거래 및 이러한 거래에 내재된 배수(multiple) 또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Example 3

건설회사인 기업 H는 20X4년 6월 30일 현재 손상검토를 위하여 할인된 현금흐름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진은 여러 주요 가정(현재의 침체로부터 빠른 회복을 포함)에 근거하여 사용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 회수가능액이 20X5년의 이익의 10배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손상은 없다.

경영진은 현금흐름의 계산을 입수가능한 시장 데이터와 상호 검증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 H의 경쟁자는 20X5년 예상 이익의 5배의 가격으로 최근에 매각되었으며, 이는 예상이익의 12배로 평가되었던 12개월 전의 주가에서 낮아진 것이다.

지난 해 지역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전문가는 20X6년 후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서의 쇠퇴는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심각한 쇠퇴를 암시하고 있다.

여러 출처부터의 입수된 외부 시장 자료 고려하면 기업 H의 경영진이 예측이 낙관적일 수 있다. 경영진에 의해 사용된 가정이 외부 정보와 일관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은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IAS 36 문단 134(d)(ii)].

Market capitalisation below net asset value

공개기업인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예상현금흐름을 검증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또 다른 외부 증거가 된다. 순자산가액보다 낮은 시가총액은 명시적인 손상의 징후이다 [IAS 36 문단 12(d)]. 만일 시가총액이 사용가치의 측정치보다 낮다면,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회수가능액에 사용된 현금흐름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 검토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손상검사에서 동등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운전자본과 세금은 고려해야 하는 두가지 주요 요소이다.

장부금액은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만을 포함해야 한다. 손상검사 목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를 사업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에 근거한다. 이는 기말 시점의 운전자본의 정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다. IAS 36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운전자본 자산만큼 가산하고 운전자본 부채만큼 차감하면, 이를 조정하지 않은 현금흐름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채로 이미 인식된 의무와 관련된 현금의 유출액은 관련 부채가 현금창출단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그러한 부채의 예에는 채무, 연금, 충당금이 포함된다. 부채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그러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다 [IAS 36 문단 76(b)]. 복구충당부채는 관련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빈번하게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다.

현금흐름의 추정치는 (이자 지불을 포함한) 재무조달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해야 한다. 이는 부채가 장부금액에서 제외되며 자본조달비용은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현금흐름도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당기 및 이연 법인세는 사용가치 현금흐름에서 제외되나 [IAS 36 문단 50(a)] 순공정가치 현금흐름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4

Terminal value

한정 내용연수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영구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정 예측 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서 투자자가 지불할 금액을 나타낸다.

영구가치는 출구가격 배수(exit multiple) 또는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으로 비한정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영구현금흐름계산공식으로 산출된다. 출구가격 배수는 시장 정보에 기초해야 하며 추정의 마지막 해의 현금흐름에 적용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든지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이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지와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정기간이 정상적인 성장과 이익수준을 달성할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기간이 너무 짧다면 전체 가치평가가 영구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일부의 편차나 오류의 영향이 증폭될 것이다.

장기 성장률은 장기 물가상승률의 예상과 비교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장기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장기 명목 성장률은 사업이 궁극적으로 경제 자체의 성장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

Discount rates

다수의 기업이 할인율을 결정할 때 자본자산가격결정 모형(CAPM)을 사용한다.

현행 시장상황 하에서 이 모형에 사용되는 많은 투입변수들에 변동이 있어 왔다. 많은 주된 통화(예를 들어 파운드나 US 달러, 유로)상의 2014 년 12 월 31 일 채권 수익률은 2013 년 12 월 31 일의 수익률 보다 낮다. 무위험수익률(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다른 투입변수(예를 들면 주식시장위험 프리미엄)에서의 증가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다.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구체적인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이다. 각각의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할인율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 할인율은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이미 조정된 위험에 대해서는 조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승인된 예산에 근거한 현금흐름을 할인한 추정치는 위험에 대해 조정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험조정은 할인율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국가위험, 통화위험 및 현금흐름위험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mple 5

그룹의 사업은 수도사업과 생물공학에 종사하는 종속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사업 종속기업은 생물공학 종속기업보다 낮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생물공학 종속기업은 설립시 전적으로 채무로 조달되었으며, 수도사업 종속기업은 채무와 자본으로 조달되었다. 채무에 대해서는 그룹 전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종속기업들은 개별적인 현금창출단위이다. 생물공학 종속기업의 손상검사에 적용될 할인율은 생물공학 산업의 높은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도사업 종속기업과는 별개로 산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할인율은 종속기업들의 실제 자본구조와는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가치는 세전현금흐름에 세전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손상검사에서 할인율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후할인율이다. 따라서 반복적 연산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손상인식으로부터의 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세후현금흐름과 세후할인율을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의 경제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론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전모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외화현금흐름인 경우 할인율의 복잡성은 증가한다. 미래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이 창출될 통화로 추정되며, 해당 통화에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된다. 이 할인율의 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우의 할인율은 국가 및 통화위험에 영향을 받으므로, 나머지 부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외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손상검토가 수행되는 시점의 현물환율로 환산되어야 한다. 현재 환율보다 더 신뢰성있는 미래 환율을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IAS 36에서는 손상검사에 존재하는 선도환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